

#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홍 금 희<sup>†</sup>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ocultural Pressure over Ideal Appearance Attitude and Body Shame

Keum-Hee Hong<sup>†</sup>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접수일(201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 28일)

### Abstracts

Personal appearance attitude about the ideal beauty is influenced by the context of the culture one belongs to. In a cultural sphere the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individuals have then the more sensitive one would be to the sociocultural pressure about thinness and thus the higher the expectations about the ideal appearance. Accordingly, in that culture one would have more body shame when they do not reach the ideal beauty standard.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German culture, with a focus on the age group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specially sensitive to aesthetic conscious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ce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internalization, appearance awareness and body shame between the two cultural spheres; in addition,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the variables when compared to Germ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then the higher the internalization of the ideal appearance; the ideal appearance awareness increased the body shame. In the case of the German female university student group, public self-consciousness influenced body shame directly; however, in case of the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 group public self-consciousness were not directly affective. Rather, 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s directly affected body shame and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al spheres. Finally, in regards to the direct effect about body shame, the German female university student group noted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s the most significant; however, the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 group noted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pressure as the most significant.

**Key words:** Public self-consciousness, 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attitude, Body shame, Cross-cultural study; 공적 자기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태도, 신체수치심, 비교 문화연구

### I. 서 론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khhong@silla.ac.kr

오늘날, 서구적 미의식과 신체이미지는 글로벌한 미의식과 신체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의 추구로 인한 식이장애 등과 같은 문제는 서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아시아권이나 서구 사회의 유색 인종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Forbes & Jung, 2008).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미에 대한 수용정도나 외모태도는 개인이 속한 문화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그 사회가 이상적인 미의 수용에서 편협한 사회인지, 아니면 다양한 신체이미지와 개성을 수용하는 관용적인 사회인지에 따라 이상적인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의 정도나 이상적인 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신체수치심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의 외모태도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마케팅 시대에 다양한 문화 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조윤진 외, 2006).

문화권에 따른 소비자 행동과 태도연구들은 대부분 집단주의 사회인 동양 문화권과 개인주의 사회인 서구 문화권을 비교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회관계 차이를 연구해온 Triandis(1989)에 의하면,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적인 자아(private self)'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가 각각 상대되는 문화에서보다 더 많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개인적 자아가 발달한 사람들은 집단보다 개인의 욕구에 우선권을 두는 반면에, 집단적 자아가 발달한 사람들은 집단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집단 내의 화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윤주, 2001).

이와 같은 문화권의 사회관계의 차이는 신체외식, 외모태도 및 의복행동 등에서도 반영된다. Sun et al. (2009)에 의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적인 외모에 대한 의식이 높고 의복행동을 통해 권력지위(power status)와 집단소속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박은아(2003)도 집단적 자아가 발달한 한국인들은 서구인들보다 체면을 중시여기고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외모를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체면 중시나 타인의의식을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적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Thornton & Maurice, 1997). 그리고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sociocultural pressure)에 대해서도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연희, 홍양자(1992)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행동에는 친구들의 영향이 컸으며, 김윤, 황선진(2008) 연구에서도 미디어, 가족, 친구에 의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성인여성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대상화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Jung and Lee(2006) 역시,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여대생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여대생들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였고 신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내었는데, 여기에는 미디어의 압력과 성역할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민감할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아 자신이 이상적 외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신체 수치심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과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의 여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비교문화연구들이 서구권의 연구대상 국가로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럽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조윤진 외, 2006). 그 중 특히 독일은 유럽 EU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외식이나 의복행동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 더구나 독일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이며, 그에 비하여 한국은 내집단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이다(고윤주, 2001). 따라서 본 한국과 독일의 비교문화연구는 다양한 나라와의 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마케팅 시대에 글로벌 패션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적 자기의식

Fenigstein et al.(1975)은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을 ‘내적 혹은 외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의 일관된 경향’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사회적 염려(social anxiety)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이 중 공적 자기의식이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상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 Schlenker and Weigold(1990)도 사적 자기의식은 신념, 가치, 기분과 같은 내면의 자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인데 반하여, 공적 자기의식은 외모, 행동, 말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Thornton and Maurice(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았을 때 비교효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자신을 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라 신체불만이 높았고 사회적 자아존중감도 낮아졌다. 손은정(2007a)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에 대한 감시가 높았으며 그 결과 간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져 성형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 2.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태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Heinberg et al.(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 미의 내면화와 이상적 미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신체불만족과 식이장애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신체불만족의 일차적 원인을 미디어의 영향으로 본다. TV와 같은 대중매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 이미지를 마치 도달이 가능한 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가까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력을 준다는 것이다. 날씬함에 대한 이와 같은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압력은 그 사회에서 선호하는 날씬한 신체 이미지를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인 이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한편 Stice et al.(1996)은 미디어 압력 외에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도 그와 같은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족

이나 친구, 이성친구의 압력까지 포함시켜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을 측정하였다. 실제 김경원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대생집단의 경우에 가족들이 자신에게 더 마른 체형과 체중감량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김연희, 홍양자(1992)의 연구에서도 여고생들의 경우 친구들의 영향으로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압력도 외모태도와 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윤, 황선진(2008)의 성인 여성의 경우도 미디어, 가족, 친구에 의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대상화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날씬한 외모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은 집단적 자아가 발달한 문화권에서 더욱 클 것이다. Forbes and Jung(2008)는 Stice et al.(1996)의 측정으로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 한국여대생집단이 미국여대생보다 이상적 외모기준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중요한 타자들(가족, 이성친구 등)의 압력이 더 커서 이들에 의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신체불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Forbes and Jung(2008)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수용에서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변수야말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3. 이상적 외모인식과 내면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inberg et al.(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이론은 미디어로 인해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인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그 결과 신체불만족이 크다는 이론이다. 특히 내면화 요인은 Forbes and Jung(2008)의 연구에서도 신체불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한국표본에서 보다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Stice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연관이 높았다. 홍금희(2006)는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미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내면화가 클수록 신체미만도(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20대는 신체만족도가 30대보다 낮았는데, 이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비교의식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높았다(Thornton & Maurice, 1999).

#### 4. 신체수치심

이상적 외모의 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신체수치심은 더 클 것이다. McKinley and Hyde(1996)은 객체화된 신체의식 이론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내면화된 기준에 맞추는 정도를 자신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자신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에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곧 수치심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사실 그 기준들은 비현실적이므로 명백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면화된 신체기준이 미디어 등의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스스로가 그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McKinley and Hyde(1996)의 객체화 신체의식은 신체감시성 요인, 신체수치심 요인, 외모에 대한 통제신념 요인의 세 요인으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신체수치심 요인이 공적 자기의식과 상관관계가 높다. 손은정(2007b)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자기대상화에서의 신체감시가 높아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더 많이 지각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섭식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Forbes and Jung(2008)의 연구를 보면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표본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표본보다 신체불만족에 대한 신체 수치심의 영향력이 더 컸다.

#### 5. 문화권에 따른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의 차이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신체의식이나 외모태도 및 의복행동 등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서구 나라들을 비교한 Mautner et al.(2000)에 의하면, 서구권 나라들 간에는 외모태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비슷하였으며, 신체불만족 모형과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의 외모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행위의 원동력이 개인의 내적 속성(성격, 능력, 정서, 욕구, 의도 등)에 있다고 보고 자립과 자기주장을 강조하며 독특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여 의복에서의 개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중시하여 의복에서의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구가 더 커서 동조적 의복구매와 집단유행 추종 현상이 높다(최선행, 오현주, 2001). Sun et al.(2004)의 개인주의자 문화(영국, 미국)와 집단주의자 문화(중국, 일본) 사이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점을 비교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자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집단주의자 문화권 소비자들보다 더 브랜드에 집착하며, 여행지향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재정적으로도 만족하며 보다 낙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Sun et al.(2009) 연구에서도 집단주의자 문화에서 공적 외모의식이 더 높았는데, 그에 따라 의복행동에서 권력지위와 집단소속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특히 중국문화권에서는 공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곧 체면을 의미하므로 공적 외모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은영(1995)에 의하면 한국사람들도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 신분에 맞는 소비행동을 하려는 체면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은아(2003)의 한국여대생과 미국여대생의 신체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여대생은 신체감시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신체비만도인 BMI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시선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여대생은 BMI보다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인 개인의 심리상태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쳤다. Jung and Lee(2006)도 한국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들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신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어서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공적 자기의식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인식과 내면화가 높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체수치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보다 외모를 사회적 관계와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 더 높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의 내면화와 인식이 높아서 신체수치심이 클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한국과 독일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 2. 측정도구

1) 공적 자기의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정도를 말하며, Fenigstein et al.(1975)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문항이다.

2)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미디어, 가족, 친구 및 이성친구로부터 이상적 외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받는 정도를 말한다. Forbes and Jung(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Stice et al.(1996)의 문항 중 ‘나는 TV나 잡지를 보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나는 내 가족들(친구, 이성친구)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를 내면화하는 정도를 말하며, Heinberg et al.(1995)의 내면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여자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TV쇼

프로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이상적 외모를 보여준다’의 5문항이다.

4) 이상적 외모인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를 말하며, Heinberg et al.(1995)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매력적인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외모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3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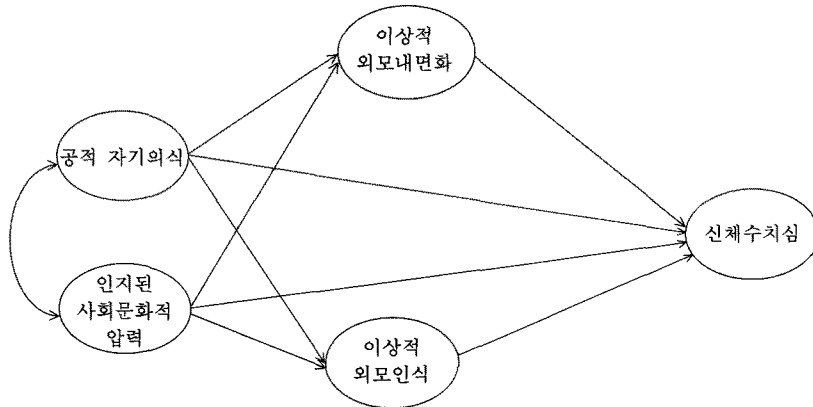
5) 신체수치심: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문화적 신체표준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할 때 느끼는 수치심 정도를 말하며, Mckinley and Hyde(1996)의 측정도구에서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여겨진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 3. 비교문화연구시 고려사항

비교문화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도구와 표본의 특성, 표본의 크기, 조사시기 등에서 동가성(equivalence)이 요구된다(조운진 외, 2006).

우선 번역으로 인한 설문문항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한국어, 독일어의 세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먼저 영어로 된 원문항을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 이를 다시 영어로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원문항과 대조하였다. 한국어 설문지의 경우도 영어 원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시 역번역한 후에 원문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부 문항에서 번역 상의 차이가 난 문항들은 관련 전문가와 의논하여 재수정을 하였다. 그런 다음, 완성된 설문지를 다시 한국여대생집단과 독일여대생집단에 게 예비조사(test-retest)를 거쳐 본 조사에 착수하였다.

표본은 양 문화권 모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3월에 걸쳐 한국의 부산지역과 독일의 베를린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독일표본에서 비유럽계(아랍계, 터키, 인도, 아시아 등)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독일여대생 집단은 총 150부가, 한국여자대학생집단은 총 17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분포에서 한국은 18~26세, 독일은 18~29세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한국여대생들은 평균 키가 161.65cm, 몸무게 51.37Kg(평균 BMI 19.68), 독일여대생들은 평균 키가 167.87cm, 몸무게 58.91Kg(평균 BMI 20.89)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본 연구모형의 검증에 위한 구성개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공격 자기 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내면화, 외모인식, 신체수치심 요인들은 모두 0.7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신뢰도에서도 높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신뢰할만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김계수, 2007).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독일집단별 구성개념의 신뢰도도 검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문화권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집단은 .61~.88, 독일집단은 .74~.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두 집단의 비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모형적합도에서도 IFI=.928, TLI=.902, CFI=.927, RMSEA=.077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구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

<표 1> 관련 구성개념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 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량	신뢰도 ( $\alpha$ )
공격 자기 의식	y1.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816	2.06	68.66	전체 .77 한국 .61 독일 .74
	y2.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875			
	y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790			
인지된 사회 문화적 압력	y4. 나는 TV나 잡지를 보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805	2.898	72.459	전체 .85 한국 .88 독일 .74
	y5. 나는 내 가족들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820			
	y6.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910			
	y7. 나는 내 이성친구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865			
이상적 외모 내면화	y8.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여자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782	3.504	70.079	전체 .89 한국 .84 독일 .89
	y9. TV쇼 프로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이상적 외모를 보여준다.	.858			
	y10. 날씬한 여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말랐으면 하고 바란다.	.867			
	y11.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날씬했으면 하고 바란다.	.881			
	y12. 나는 내가 모델처럼 보이길 원한다.	.701			
이상적 외모 인식	y13.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매력적인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845	2.026	67.546	전체 .76 한국 .76 독일 .73
	y14.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외모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801			
	y15.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751			
신체 수치심	y16.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835	2.891	72.282	전체 .87 한국 .82 독일 .80
	y17.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여겨진다.	.873			
	y18.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가 뚱뚱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847			
	y19.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신체사이즈가 아닐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845			

타났다.

한편 이들 구성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 신체수치심의 구조방정식

공적 자기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내면화, 외모인식, 신체수치심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은 <그림 2>와 같다. 본 구조방정식에 대한 적합도는 TLI가 .900, IFI가 .911, CFI가 .910 그리고 RMSEA가 .076으로 나타나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그리고 내생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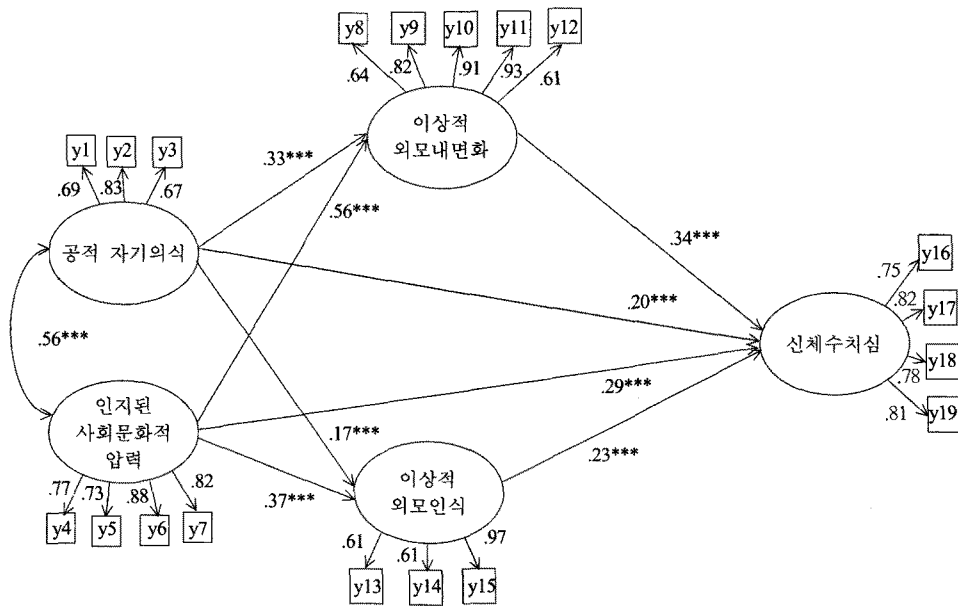
수가 외생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값을 나타내는 다중상관치값 역시 신체수치심의 경우에 .75로 높게 나타나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외모내면화가 높았으며, 그에 따라 이상적 외모와의 비교로 인한 신체수치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은 직접적으로도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가 높다고 한 손은정(2007a)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높다고 한 Forbes and Jung(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표 2>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변 수	공적 자기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사회문화적 압력	.47***			
이상적 외모내면화	.55***	.64***		
이상적 외모인식	.22***	.32***	.42***	
신체수치심	.54***	.67***	.71***	.47***

\*\*\* $p < .001$



\*\*\* $p < .001$

$\chi^2 = 431.007(p = .000)$ , NNFI(TLI) = .900, IFI = .911, CFI = .910, RMSEA = .076

<그림 2>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모형

3. 문화권에 따른 신체수치심 구조방정식의 차이

1) 문화권에 따른 구성개념들의 차이

문화권에 따른 구성개념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표 3>을 보면 모든 변수들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독일여대생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여대생이 공적 자기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내면화, 외모인식, 그리고 신체수치심이 더 유의하게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에 비하여 타인을 의식하며 외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하여 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외모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상적 외모에 가깝게 보여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에서도 한국여대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문화권 모두 미디어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 외모인식과 내면화에는 TV, 잡지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여대생집단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한편 독일여대생집단은 미디어 압력 외에 나머지 압력들이 거의 미미하였는데 반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외모에 대한 집단동조 압력(친구 압력, 이성친구 압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한국과 독일문화권에 따른 구조방정식의 차이

<그림 3>의 한국여대생집단의 신체수치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보면, 모형적합도에서 IFI와 CFI가 .90에 가깝고 RMSEA는 .094로 나타나 적합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절대 적합지수인 RMSEA의 적합도 기준이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Browne and Cudeck(1993)은 RMSEA가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

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방정식의 적합도는 <그림 4>의 독일집단과의 비교는 가능한 보통의 적합도라 할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수치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인식을 매개변수로 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감시를 통해 신체수치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던 손은정(2007b)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은 신체수치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력(.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여대생집단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개인적 특성인 공적 자기의식보다는 낯선한 신체이미지에 대한 미디어 압력이나 주변의 친구와 가족 등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압력이 외모태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수치심을 자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여대생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여대생보다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받으며 신체불만족이 더 크다고 한 Forbes and Jung(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독일여대생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IFI가 .906, CFI가 .906, RMSEA가 .075로 비교적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그림 3>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는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의 신체수치심에 대한 직접경로 여부이다. 독일여대생집단의 경우는 한국여대생집단과 달리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은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외모인식을 통해서 신체수치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의 심리특성인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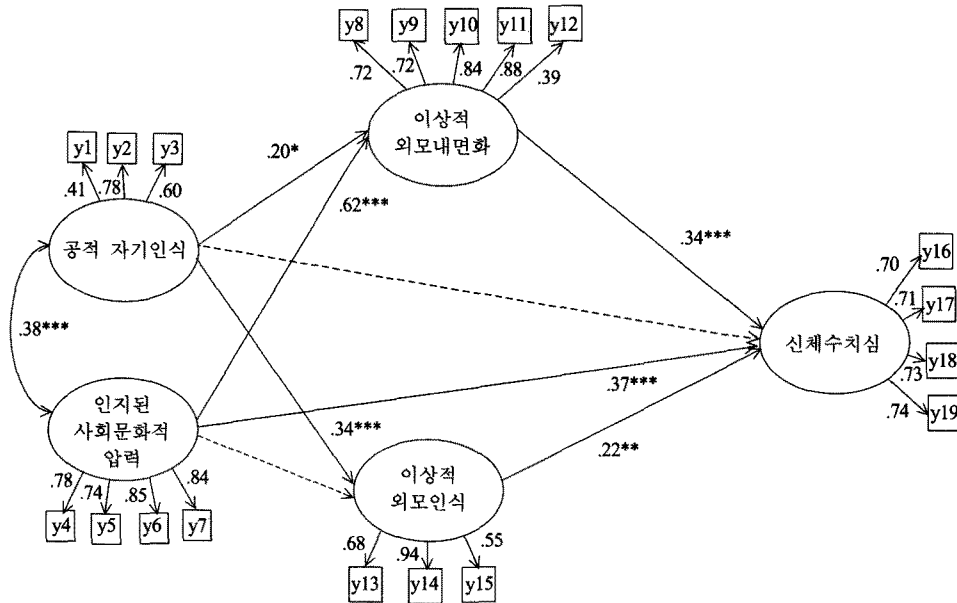
<표 3> 문화권에 따른 구성개념들의 차이<sup>a</sup>

변수 집단	공적 자기 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 내면화	이상적 외모 인식	신체 수치심
		미디어 압력	가족 압력	친구 압력	이성 압력			
독일 여대생	8.18 (2.97)	2.31 (1.26)	1.75 (1.17)	1.49 (.87)	1.66 (1.00)	11.63 (5.11)	10.43 (2.58)	6.95 (3.28)
한국 여대생	11.12 (1.71)	3.53 (1.23)	2.56 (1.30)	2.80 (1.28)	2.78 (1.37)	17.12 (4.26)	12.17 (1.85)	11.66 (3.36)
t 값	10.66***	8.72***	5.89***	10.80***	8.31***	10.35***	6.97***	12.6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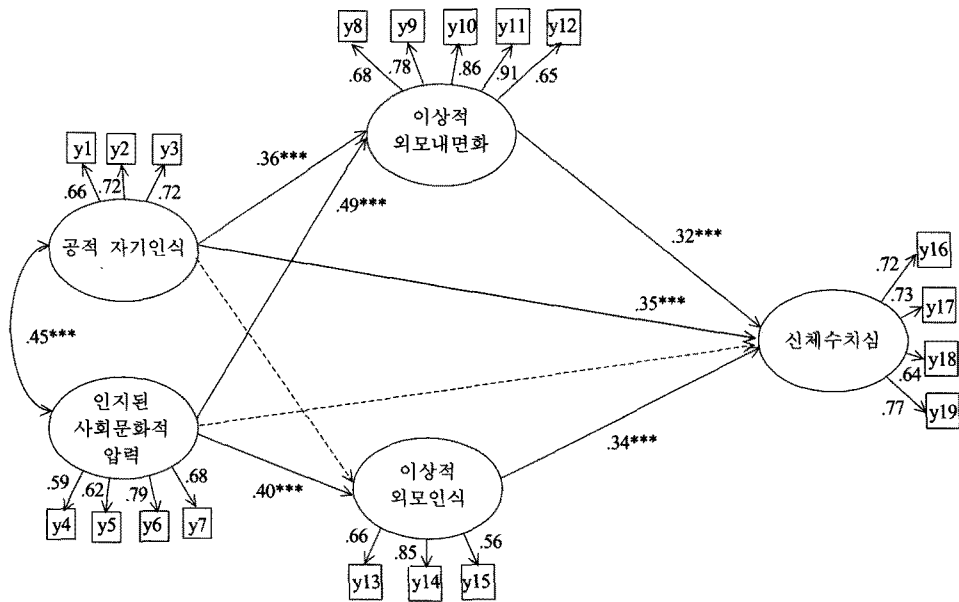
<sup>a</sup>숫자 괄호 밖은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p < .05$ , \*\* $p < .01$ , \*\*\* $p < .001$   
 $\chi^2 = 354.854 (p = .000)$ , IFI = .891, CFI = .887, RMSEA = .094

<그림 3> 한국여대생집단의 실증적 연구모형



\*\*\* $p < .001$   
 $\chi^2 = 263.997 (p = .000)$ , IFI = .906, CFI = .906, RMSEA = .075

<그림 4> 독일여대생집단의 실증적 연구모형

으며 그 영향력도 가장 컸다(35). 즉 집단규범에 의한 영향보다 개인의 내적 속성이 더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압력은 신체수치심에 대해 외모내면화와 외모인식의 매개변수를 거쳐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기준으로 인식되고 내면화 되었을 경우여야 신체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문화권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동조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이 결과는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여대생집단의 경우에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성보다 개인의 심리상태(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의식)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공적 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인식과 내면화를 통해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권에 따라 경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독일문화권에서는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공적 자기의식이라는 개인의 심리특성이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여대생들은 실제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날씬하기를 기대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향이 신체수치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한국여대생의 신체수치심의 정도는 독일여대생들보다 더 컸다.

## V. 결 론

이상적 미에 대한 외모태도는 개인이 속한 문화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하여 공적 자기의식이 발달하고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더 민감한 문화권일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기대치가 높다. 그에 따라 자신이 이상적 외모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비교의식으로 신체수치심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의식에 민감한 연령층인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문화권에 따른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에 따라 공적 자기의식,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 내면화, 외모인식 및 신체수치심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독일여대생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의 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인식이 높았으며 그 결과 신체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독일여대생집단은 신체수치심에 공적 자기의식이 직접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여대생집단은 공적 자기의식 대신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직접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였다. 신체수치심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독일여자대학생집단은 공적 자기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4.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친구 압력, 가족 압력보다 미디어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는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아울러 문화권의 신체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들임을 증명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신체외식을 설명하는 변수로 주로 공적 자기의식을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는 공적 자기의식보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은 외모를 사회적 관계와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상태인 공적 자기의식보다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동조 압력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달리 말을 한다면,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은 개인 간의 외모의 차이나 개성에 대한 수용의 폭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보다 편협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여대생들은 독일여대생들보다 실제 더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화권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수치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압력 중에서는 특히 미디어압력이 높아, TV와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개인의 신체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날씬한 신체 이미지에 대한 획일화된 동조를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미디어 매체들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신체이미지와 개성을 인정하는 메시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미디어 압력은 컸으나 가족 및 친구의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집단동조가 강한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성상 보다 섬세한 측정도구가 개발된다면 이들의 영향력도 클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수집이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와 확대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윤주. (2001).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념을 적용한 한국과 독일 비교연구. *한국교육학연구*, 6(1), 1-18.
- 김경원, 이미정, 김정희, 심영현. (1998). 여대생들의 체중조절실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1), 21-33.
- 김계수. (2007).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연희, 홍양자. (1992).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9(2), 64-71.
- 김윤, 황선진. (2008).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10), 112-122.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박은아. (2003). 신체적 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과 미국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손은정. (2007a).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손은정. (2007b).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조윤진, 양수진, 김은영, 추호정. (2006). 패션마케팅 영역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의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30(8), 1312-1322.
- 최선형, 오현주. (2001). 미국 거주 경험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의 의복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1), 11-27.
-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orbes G. B., & Jung, J. (2008). Measures based on sociocultural theory and feminist theory as predictors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1), 70-103.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Jung, J., & Lee, S. (2006).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appearance self-schema, body image, self-esteem, and die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U. S.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4(4), 350-365.
- Mautner, R. D., Owen, S. V., & Furnham, A. (2000). Cross-cultural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in Western cultural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2), 165-172.
- Mckinley, N. M., & Hyde, J.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91-215.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0). Self-consciousness and self-presentation: Being autonomous versus appearing autonomo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820-828.
- Stice, E., Ziemba, C., Margolis, J., & Flick, P. (1996). The dual pathway model differentiates bulimics, subclinical bulimics, and controls: Testing the continuity hypothesis. *Behavior Therapy*, 27, 531-549.
- Sun, T., Horn, M., & Merritt, D. (2004). Values and lifestyles of individualists and collectivists: A study on Chinese, Japanese, British, and US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1(5), 318-331.
- Sun, T., Horn, M., & Merritt, D. (2009). Impacts of cultural dimensions on healthy diet through public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6(4), 241-250.
- Thornton, B., & Maurice, J. (1997). Physique contrast effect: Adverse impact of idealized body images for women. *Sex Roles*, 37, 433-439.
- Thornton, B., & Maurice, J. (1999). Physique contrast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elf-consciousness. *Sex Roles*, 40, 379-39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